혜진스님 성관계 양심고백 원장직 사퇴-승적 포기

'나눔의 집' 운영 차질

여성단체 성폭력 비난

"후원 끊겠다" 전화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나눔의 집 원장이었던 혜진스님의 여성문제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이 여성단체와 네티즌들 간에 '성폭력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나눔의 집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눔의 집은 현재 조계종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행정공백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으나 후원을 끊겠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등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 위안부 역사관도 임시 휴관 3일만인 20일 문을 열었으나 일본 최대 전쟁연구소인 '전쟁자료센터' 소속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번달 방문을 취소시키는 등 실질적인 정상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은 이달 중으로 법인 이사회를 열고 새 원장을 선임하는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은 혼란은 지난 17일 혜진스님이 '양심고백'을 하면서 시작됐다. 혜진스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모카페에서 양심고백 기자회견을 열고 "97년과 그 이전에 두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종교인이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을 벌여온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며 "나눔의 집 원장직 사퇴와 함께 승적을 포기하고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나눔의 집에서 근무하다 작년 11월 해고된 오모(여 · 43)씨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혜진스님이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97년부터 1년여간 한 달에 두세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혜진스님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97년 3~4개월에 걸쳐 성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폭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개인 문제로 인해 위안부 피해보상 운동에 누를 끼치게 될까봐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진스님의 양심고백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나섰고, 이와는 반대로 많은 네티즌들은 "사실 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성폭력으로 규정한 자체가 폭력"이라며 발발하는 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계에서는 "스님으로서 여성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한 그동안의 공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문제로 나눔의 집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3월2일~9일 '경건주간'

출가 · 열반절 행사 다채

조계사-일일출가
정토회-한끼 굶기
신흥사-참회연비
봉은사-철야정진

3월2일과 9일은 부처님의 출가 · 열반일. 부처님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을 맞아 전국 사찰과 단체들이 이 기간을 '경건주간'으로 정하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일일출가, 참회법회, 고승법문, 경전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사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불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출가' 행사를 실시한다. 하루동안 절에 머물면서 불교의 전통 수행법과 사찰 공동체 생활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심정진법회, 발우공양, 1보3배 정진, 경전사경 등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하루에 30명씩 모두 240명이 참가하게 된다. 02-720-1390

정토회 역시 같은 기간동안 8일 출가 용맹정진과 함께 한끼 굶기 행사를 갖는다. 또한 3일에는 통일염원 철야정진을, 9일에는 수계법회도 봉행한다 02-587-8993. 경기 화성 신흥사도 3월4일 '일일출가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대회는 발우공양, 신도회장인 전재근 교수(서울대 식품공학)의 '생명과학 특강', 참회연비의식, 참선실수 등으로 진행된다. 031-357-2695

'일일출가' 행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의 법회도 풍성하다. 미타사 정수암은 8일부터 15일까지 법회 참가자들이 매일 육법공양을 올리고 〈자비도량참법〉을 독송하며 참회정진하는 '자비도량 참법법회'를 봉행한다 02-2298-1162. 또 창원 성주사는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2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큰스님 설법과 함께 108참회로 진행되는 '니르바나 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 055-262-0108

봉은사도 같은 기간동안 108참회법회를 개최하고 철야정진기도에 들어가며 02-545-1448. 구룡사도 108참회법회와 함께 참선실수 및 〈금강경〉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02-575-7766. 또 대구 법왕사도 8일간 '1만배 정진대법회'를 개최하며 053-766-3747. 부산 삼광사는 17일부터 23일까지 종단스님 초청법회와 함께 철야기도정진법회를 연다 051-808-7111.

이밖에 영남불교대학은 이 기간을 '전 신도 용맹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매일 108배 하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포교하기, 3천배 한 번 이상 하기, 불교도서 한 권 이상 읽기 등의 수행지침을 실행한다 053-474-8228. 또 강남포교원은 이 기간동안 〈유교경〉 특별강좌를 열며 02-539-2631, 금산사는 9일 '해인사 사찰순례' 행사를 갖는다 063-548-4441.

한명우 · 김재경 기자

포교사단 생명나눔운동 동참

신륵사 · 봉선사 등서 관광객 대상 홍보

포교사단이 생명나눔실천회의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한다.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3월초부터 여주 신륵사, 남양주 봉선사, 과천 연주암에서 포교사단의 사찰 안내팀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운동을 홍보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포교사단은 3월 3~4일 이틀간 대전 한국통신연수원에서 열리는 '제6회 포교사 고시 최종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에서 신규 포교사 35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및 화장서약을 할 예정이다.

포교사단 하영태 사무국장은 "생명나눔운동이 전법을 실천하는 포교의 일환인 동시에 불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포털사이트 '열린불교' 오픈

교계 최초의 사찰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중심 포털사이트가 2월 28일 오픈한다.

인터넷 열린불교(www.openbud.com)는 지우 커뮤니케이션(대표 여익구)이 인터넷 사찰관리 프로그램과 통합해 선보이는 불교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열린불교 사이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분야는 사찰관리 프로그램. 기존의 소프트 웨어가 아닌 인터넷 상에서 관리되는 종합 사찰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찰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회원)등록을 하면 칼럼 및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법회 불사 불공 인등관리 검색 및 메일 보내기(유무선 음성메일, 문자메시지, 메일) 등이 가능하다.

열린불교는 커뮤니티 구성으로 불자들의 결속을 이끌어 내고 등록사찰이 없는 불자 네티즌들을 기존 사찰과 연계시킨다는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강지연 기자

실상사 '작은학교' 3월4일 개교

교계 첫 대안학교

교계 최초의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가 3월4일 문을 연다.

실상사 작은학교 설립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지원 · 심산스님)는 8명의 교사를 확보하고 15명의 학생을 선발, 3월4일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교 대안교육(비인가 중등과정)에 나선다.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 도시학교와는 달리 자연을 벗삼으며 문화체험 및 자율활동에 무게를 둔 작은학교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입학생도 2명씩 짝을 지어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담임교사의 집에서 3년간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과목의 수업을 받지만 오후에는 다양한 역사체험 및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특기와 개성을 살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학교 앞 텃밭에 각종 채소를 기르고 돼지와 닭 등을 사육, 주식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자립정신을 키우게 된다.

실상사 사중 큰방과 약사전 뒷편 콘테이너에 임시 교실을 마련하고, 교사와 학생이 숙식을 같이 할 생활관으로 민박집 2동과 일반 주택 1동을 갖춘 작은학교는 2학기부터 실상사 인근 산내면 선돌마을에 위치할 귀농전문학교 부근에 학사를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은학교 설립추진위는 학사 마련 및 안정적 운영기금 확보와 불교 대안교육 확산을 위한 역량 축적 및 토대구축을 위해 3억원을 모금(현재 1천2백만원 확보)하기로 하고 모연(募緣)활동에 들어갔다. 02)636-3369 김재경 기자



동국대 왕생원 개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정필현)은 경주병원 서편에 전문 장례식장인 왕생원을 마련하고 20일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을 비롯해 서정욱 동국의료원장, 이원식 경주시장, 신성모 경주시의회 의장 등 교내 · 외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외국인 노동자 평등하게 대해달라"

방한 미얀마 냐니사라스님



미얀마의 한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었다.

미얀마 불교계의 최고지위(Agamaha pannita)급 고승인 냐니사라 스님(시타구 위하리불교대학장)은 25일 부천 석왕사에서 재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회를 열고, 이국 땅에서도 불교 신행을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23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회를 석왕사에서 연 냐니사라 스님은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생명 평화연대 준비위

'지리산살리기 댐백지화 범불교연대'와 녹색연합 등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가칭)'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이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를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총리실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 최종방침 확정을 당초 예정일인 지난 21일에서 오는 3월말로 연기한 것은 여론이 식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또 "지난해 12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환경부차관이 '1조원을 넘게 들여도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농업용수기준(4급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자료를 제출한 뒤 심한 질타를 받았다"며, "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새만금 사업자인 농업기반공사의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발표하는 등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도와주세요

뇌종양 노동자



방글라데시인 모하마드 사이풀하(Mohammed Sayfullah 남 · 36)씨가 한국의 프레스공장에서 일해 오다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1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032)654-0664, 국민은행 210-21-1413-820(예금주:이란주) 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아바타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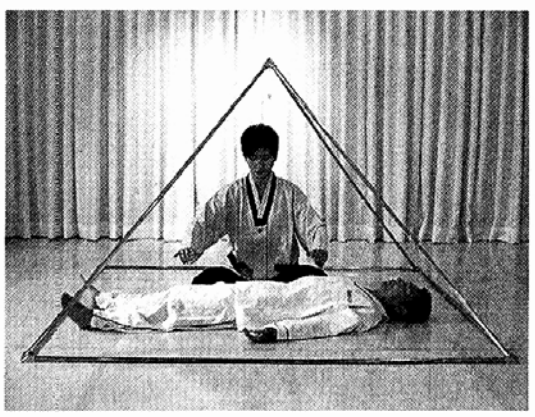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다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요.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요.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파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 퇴행 요법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다클리닉 강남센터 : 02)3218-7611
여의도센터 : 02)786-2333
광 주 센 터 : 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